

“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”이 우리의 소원



이 세상은 고통이며 극락은 저 세상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. 삶은 고통이라며 사후 세계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시대가 있었습니다.

그러나 ‘그렇지 않다,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의 세계를 구축하겠다’ 라고 선언하신 분이 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님이십니다.

헌 옷을 벗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, 또 다시 새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환생하고 즐거운 삶을 누린다. 그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“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”이 우리의 소원



이 세상은 고통이며 극락은 저 세상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. 삶은 고통이라며 사후 세계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시대가 있었습니다.

그러나 ‘그렇지 않다,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의 세계를 구축하겠다’ 라고 선언하신 분이 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님이십니다.

헌 옷을 벗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, 또 다시 새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환생하고 즐거운 삶을 누린다. 그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다섯 손가락처럼 , 형제라면 어느
손가락을 깨물어도 다 아프겠지 .

(계시록 · 지도말씀 =1899.12.27)

다섯 손가락처럼 , 형제라면 어느
손가락을 깨물어도 다 아프겠지 .

(계시록 · 지도말씀 =1899.12.27)

우리 인간들은 모두
같은 아버지신님의 자
녀이며 , 모두 평등한
형제자매입니다 . 지
구상 어디에 있어도
가뭄 피해와 냉해 , 지



진이나 풍수해 , 그리고 기아에 괴로워하는 사람들
이 있으면 ‘ 힘들겠구나 , 괴롭겠구나 ’ 하며 지원의
손길을 내밀어 주는 마음 . 아버지신님께서는 인간
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 바라고 계십니다 . 모두가
다섯 손가락처럼 서로 돕는 세계가 되면 좋겠네요 .

우리 인간들은 모두
같은 아버지신님의 자
녀이며 , 모두 평등한
형제자매입니다 . 지
구상 어디에 있어도
가뭄 피해와 냉해 , 지



진이나 풍수해 , 그리고 기아에 괴로워하는 사람들
이 있으면 ‘ 힘들겠구나 , 괴롭겠구나 ’ 하며 지원의
손길을 내밀어 주는 마음 . 아버지신님께서는 인간
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 바라고 계십니다 . 모두가
다섯 손가락처럼 서로 돕는 세계가 되면 좋겠네요 .

<https://www.tenrikyo.or.jp/kor/>



<https://www.tenrikyo.or.jp/kor/>

